

조선후기 한문학과 童蒙(아동)의 관련 양상

—동몽의 작중 형상에 중심을 맞추어—

김동준*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교육 대상으로서의 동몽: 현실의 지진아에서 이상적 모델까지
3. 예비 작가로서의 동몽: 신동 시인에서 야심찬 저술가까지
4. 작중 인물로서의 동몽과 그 형상: 귀한 자식에서 버려진 아이까지
 - 1) 아련하고 사랑스러운 자식들
 - 2) 위기를 극복하는 비범한 아동들
 - 3) 맹랑하고 철없는 유년의 아이들
 - 4) 방치되며 버려지는 아이들
5.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조선후기 한문학과 동몽[아동]의 관련 양상을 검토한 결과이다. 동몽 관련 장르가 늘어나고 자료의 비중이 현격히 증대한다는 현상에 유의하여 조선후기를 집중적 조명 대상으로 삼았다.

본론에서는 세 갈래로 한문학과 동몽의 관련 양상을 조명하였다. 2장에서는 교육 대상으로서의 동몽의 모습을 살폈다. 동몽교육서 보급이 본격화된 조선중기를 지나 조선후기에는 家訓, 家誡 등을 통해 가문별 동몽 교육이 확산되고 있었다. 가문 계승자에 대한 부모 세대의 기대는 동몽의 자손에게도 이상적인 인간상을 강권하는 추세였다. 3장에서는 예비 작가로서의 동몽을 살폈다. 문장, 특히 시 잘 쓰는 동몽은 신동으로서 널리 칭양되었는데 이는 동몽의 시 쓰기 능력이 본인의 입신양명과 가문의 현창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와 더불어 조선후기에는 동몽이 동요의 작가로 등장하기도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의욕적인 저술가를 향하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정교수

는 실례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4장에서는 작중 인물로서의 동몽과 그 형상을 살폈다. 한시와 민요 외에도, 조선 후기에는 祭文, 墓誌, 書信, 日記, 筆記, 傳과 行狀 등에 걸쳐 관련 장르가 대폭 확장되었고 해당 작품도 압도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들 작품들 속에 묘사된 동몽은 아련하고 사랑스러운 나의 자식, 지혜를 발휘해 위기를 이겨나가는 비범한 아동, 맹랑하고 철없고 순진한 유년의 아이, 사회적으로 방치되고 버려지는 아이가 두루 형상화되고 있었다. 자료의 분포로 보자면, 한문학에서의 아동은 작가와 직간접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비중이 높았던 반면 고아나 걸아 등의 사회적 약자를 주인공화한 빈도가 낮았다.

결론에서는 동몽과 관련한 조선후기 한문학의 특징을 간추렸다. 첫째, 동몽을 수용하는 한문학의 하위 장르가 확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작자와 직접적인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작품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작중 동몽은 대체로 실존인물이자 고유명사로 호명될 수 있는 존재들이었으며, 대부분 그리움과 사랑의 존재로 형상화되었다. 셋째, 遺棄兒, 行乞兒 등이 작중 주인공이 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당시의 한문학이 동몽의 현실을 정당하게 인식하는 데 미흡했음을 의미한다.

주제어 한문학, 동몽, 아동, 가훈, 동요, 신후담, 이광사, 정약용

1. 들어가는 말

본고는 한국 고전문학과 아동의 관련 양상을 조명하고자 한 학회의 기획¹⁾에 따라 조선후기 한문학의 상황을 검토한 결과이다. 아동을 수용하는 한문학 장르의 폭이 넓어지고 유관 자료의 비중이 현격히 증대되는 현상을 주목하여 조선후기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 이 논문은 한국고전연구학회(2019.08.21.)의 기획주제 <아동에 대한, 아동에 의한, 아동을 위한 고전문학의 세계>에 참여하여 발표한 글을 보완한 것이다. 토론을 맡아주신 박동욱 교수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兒童’이라는 어휘를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童蒙’이라는 개념을 대신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아동’은 20세기 이후 성립된 근대어로서 성인과 차별 없는 인격을 지닌 어린 사람을 뜻하는 바, 전근대 시기에 이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 어휘는 없다고 본다. 그나마 동몽이라는 개념이 성인의 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인간 그리고 啓蒙 대상으로서의 學齡期 인간을 뜻한다는 점을 취하여, 전근대 시기의 아동기를 동몽기로 파악하는 입장을 따른다.²⁾

아동 연구는 교육학, 철학, 사회복지학, 의학 등 여러 각도에서의 학술적 접근이 가능하다. 다만 19세기 이전의 아동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아동교육에 초점을 맞춘 교육학 분야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³⁾ 사회복지 차원에서 遺棄兒를 재료로 삼은 연구⁴⁾ 등이 눈에 띈다. 아동교육서와 관련된 교육학계의 연구 성과나 遺棄兒 收養令을 정리한 사회복지 분야의 논고 등은 본고의 논지를 출발시키는 전제가 될 수 있었다.

문학 분야에서도 그간 충실한 성과가 축적되어 왔다. 동몽의 문학[특히 한시]을 대중에게 소개한 단행본을 비롯하여⁵⁾ 아동문학으로서의 학술적

- 2) 이런 사정에 기인하여 기존의 연구자들도 전근대의 아동기를 상정할 경우에는 성인식 이전의 시기가 곧 아동기라는 데 대체로 동의해왔다. 다만 이 안에서도 남녀 성정이 나타나는 7-8세를 전후하여 兒童과 成童으로 구분하는 견해가 있다. 이외에 胎兒-嬰兒-乳兒를 아동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3) 유안진, 『韓國의 傳統育兒方式』, 서울대출판부, 1986 ; 백혜리, 「조선시대 성리학, 실학, 동학의 아동관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1997 ; 우영희, 「朝鮮時代 敎訓書를 통해 본 子女養育」, 중앙대 박사논문, 1989 ; 김미라, 「韓國 傳統 어린이 敎育觀 研究」, 성균관대 박사논문, 2012 ; 민경상, 「이덕무 『사소절(士小節)』의 덕 윤리적 해석」, 경인교대 석사논문, 2009 ; 이정숙, 「李德懋의 청소년예절교육론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2011 참조. 이외의 관련 논저가 많으나 모두 참고하지 못하였다.
- 4) 박서진, 「조선후기 遺棄兒 收養法의 변화와 수양의 양상」, 부산대 석사논문, 2018.
- 5) 허경진, 『내 아들 딸들에게 아버지가 쓴다』, 푸른역사, 1999 ; 『선비들이 어릴 때 지은 한시』, 웅진북스, 2002 ; 『옛 선비들이 어릴 적 지은 한시이야기』, 알마출판사, 2014 ; 안대회, 『선비답게 산다는 것』, 푸른역사, 2007 ; 『내 생애 첫 번째 시 : 아동 한시 선집』, 보림, 2016 ; 박동욱, 『가족 : 세상에 다시없는 내 편』, 태학사, 2014 ; 『그

연구⁶⁾가 두터운 바탕을 이루었다. 가족 담론 및 의학적 시야로까지 연구 영역이 확대되는 추세도 유의할 만한 방향이다.⁷⁾ 이들 논저는 아동[동몽] 텍스트의 성격과 가치, 재미와 감동을 드러내는 데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했다.

그러나 학술적 연구로 좁혀보자면 기존의 연구시는 아동의 ‘작품’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정작 작품 내의 아동과 그 형상을 조명하는 데는 미흡했다. 대중적 단행본의 경우, 가족담론의 자장에서 자식으로서의 아동을 눈여겨보도록 했으나 이 역시 논문의 성격과는 다소 결을 달리한 성과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고는 기존 연구 성과를 두루 활용하되 ‘작중 아동의 형상’을 보다 강조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구비설화, 국문시가, 고전소설 등의 타 영역과 대비될 수 있는 한문학 분야의 특성이 무엇인가, 아동 연구가 한문학사의 이해에서 어떤 의의를 성취할 수 있는가를 궁구해보는 것 또한 이 글의 지향하는 목표이다.

렇게 아버지가 된다』, 휴머니스트, 2017.

- 6) 정경주, 「조선조 아동 한시에 대하여」, 『부산한문학』 3, 부산대학교, 1988, 249~277쪽; 정운채, 『한시의 예언적인 힘의 원천과 기의 성격』, 『고전문학연구』 11, 1996, 203~239쪽; 안기중, 「朝鮮朝 童蒙詩 研究」, 안동대학교 석사논문, 2005; 김미화, 「漢文學 作家의 兒童期 漢詩 研究」,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2006; 심경호, 「전근대 시기의 아동관과 아동의 문학」, 『창비 어린이』 5-4, 2007, 198~222쪽; 이종목, 「조선시대 여성과 아동의 한시 향유와 이중언어 체계」, 『진단학보』 104, 진단학회, 2007, 179~208쪽; 안대회, 「조선조 아동 한시의 텍스트와 아동 한시를 보는 시각」, 『진단학보』 122, 진단학회, 2014, 119~143쪽; 손앵화, 「동몽시의 언술 특징과 의미」, 『한국언어문학』 88, 2014, 101~126쪽; 진재교, 「無名子 尹愔의 童蒙詩와 그 世界」, 『大東文化研究』 89, 2015, 85~111쪽.
- 7) 박동욱, 「천연두, 그 아픔과 상실의 기억 - 張混의 「記憾」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52, 2015, 261~288쪽; 「한시에 나타난 養子의 모습」, 『民族文化』 49, 2017, 333~356쪽 등.

2. 교육 대상으로서의 동몽

: 현실의 지진아에서 이상적 모델까지

冠禮 이전의 시기를 동몽기로 여겼던 조선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동몽의 아동을 계몽 대상으로 간주했다. 단적으로 『大明律』, 『經國大典』, 『大典會通』 등의 법전에서 동몽을 위한 별도의 규정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그들은 사회적 인권을 부여받는 대상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미성숙한 존재로 파악되었던 까닭에 존중과 보호보다는 훈육과 징계의 문맥에서 이따금 언급되곤 하였다. 『大明律直解』를 예로 들건대, 조부모나 부모가 명을 어긴 자손을 징치하다 살해했을 경우에는 장 100대를 가했던 반면, 조부모나 부모의 教命을 어기는 것만으로도 자손들에게는 장 100대의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⁸⁾ 이런 규정은 장차 부모의 教命이 命을 넘어 命, 즉 父命으로 절대화하도록 작용하였다.

이러한 법률 상황과 병행하여 조선중기까지는 모범적인 동몽상이 규범화되던 시기였다. 『朱子家禮』 등의 각종 예서와 『童蒙先習』, 『擊蒙要訣』, 『小學』, 『明心寶鑑』, 『啓蒙篇』 등의 동몽교육서에서 남성 동몽은 군자가 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부여받았다. 인격 수양과 책임감, 가문 승계의 역량은 성인이 되어갈수록 더 강하게 요구받는 자질이였다. 그래서 男女七歲不同席으로 선언되는 7-8세 무렵 성징기를 전후하여, 전반기의 동몽에게는 상대적으로 구속 없는 자유가 허용될 수 있었던 반면에 成童化되어 가는 후반기 동몽에게는 학습, 일과, 예절 등의 책무가 점차로 더해졌다. 아래의 몇 사례는 조선중기 동몽의 이상형을 보여주는바, 조

8) ‘조부모나 부모가 자손을 고의로 살해했을 경우에는 장 100대와 徒役 1년 반(殺子孫及奴婢圖賴人子), ‘자손이 부모나 조부모의 教命을 어겨 그 자손을 상해 치사시킬 경우 장 100대를 가하되 고의로 살해했을 경우에는 장 60대와 도역 1년 반(毆祖父母父母), ‘자손이 조부모나 부모의 教命을 어기고 봉양하지 않으면 장 100대(子孫違犯教命) 등의 조목이 확인된다.

선후기 동몽을 이해하는 필수 전제가 된다.

먼저, 조선 家禮의 근간을 이루었던 『주자가례』 가운데, 「通禮篇」의 <司馬氏居家雜儀>를 본다.⁹⁾ 사마광의 이 가르침은 『격몽요결』, 『내훈』, 『사소절』 등에 걸쳐 깊은 교시와 인상을 남겼다. 이 기사의 서두는 동몽의 초기 교육을 강조하면서 『顏氏家訓』의 구절, 즉 ‘며느리는 처음 왔을 때 가르치고 자식[남성]은 어려서 가르치라’는 구절을 인용하였다.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면서 초기 교육을 중요시한 것이다. 이어 6세 항목에는 ‘남자는 비로소 글자를 익히게 하고 여자는 비로소 女工을 익히게 하라(男子始習書字, 女始習女工之小者)’고 하였으며, 7세 항목에는 ‘남녀가 자리를 함께 하지 말도록 하며, 『효경』과 『논어』를 읽으라.’고 하였다. 특히 7세 이전과 이후의 구분을 분명히 하여 이전 시기를 ‘孺子’ 즉 어린 아이 단계로 구별해 두었다. 8세 이후에는 남성 동몽의 경우에 심층적인 글공부[8세 『상서』, 9세 『춘추』, 10세 『시전』과 『禮典』 그리고 제자백가]에 초점을 맞추어 통달한 선비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 반면, 여성 동몽의 경우는 『논어』, 『효경』, 『列女傳』, 『女戒』의 공부를 대략 허용하면서도 유순함과 순종 그리고 누에치기, 길쌈, 바느질, 요리 등 부인의 직분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마무리 부분에 관례와 계례를 치르지 않은 자는 어른과 장자를 도와야 한다고 했으며, ‘관례와 계례를 치렀으면 성인의 예를 책임지운 것이므로 이제부터는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않는다(若既冠笄, 則皆責以成人之禮, 不得復言童幼矣).’고 하였다. 말하자면 7세부터 성인 의례 이전까지는 남자와 여자 모두 본격적으로 성인 준비를 해나가는 시기이되, 남자는 글공부를 여자는 살림을 그 핵심을 삼고 있는 것이다.

<司馬氏居家雜儀>에 보이는 동몽 계몽의 양상은 조선전기 사회에서 더욱 보편화되었다. 15세기 상층 여성교육서인 소혜왕후의 『內訓』은, 『女

9) 임민혁 번역, 주희 지음, 『주자가례』, 예문서원, 2007(제4판), 110~113쪽 참조. 임민혁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家禮』 및 『性理大典』의 『家禮』를 번역 저본으로 삼았다.

教』를 인용하며 여성의 四行[婦德, 婦言, 婦容, 婦功]을 행동 규범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사마씨거가잡의>를 요약 인용하면서 ‘여자는 여섯 살에 소소한 여자의 일을 배우기 시작하고, 일곱 살에 『효경』과 『논어』를 외우고, 아홉 살에 『논어』와 『효경』과 『여계』 등의 글을 강론하여 큰 뜻을 대략 알게 해야 할 것이다. 요즘 간혹 딸에게 노래와 시를 짓고 세속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땅치 않다.’¹⁰⁾고 하여 여성의 글공부를 얼마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내훈』의 초점은 여성이 남성을 보조하여 가족과 가문을 원만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그 문맥에서 동몽의 모범적 여성상이 자리를 잡았다.

동몽기의 여성 교육에 비해 남성 교육은 더욱 힘주어 강조되었다. 대표적 동몽교육서인 『明心寶鑑』은 수록 내용 전체가 혼인 이전까지의 동몽 교육을 담고 있는 책이다. 이 중 배움을 세운다는 뜻의 「立教」편에서는 ‘讀書는 가문을 일으키는 근본이요 循理는 가문을 보호하는 근본이며 勤儉은 가문을 다스리는 근본이요 和順은 가문을 질서 있게 하는 근본(讀書, 起家之本, 循理, 保家之本, 勤儉, 治家之本, 和順, 齊家之本.)’이라 하여 독서를 포함한 행동 기준을 제시하였다. 남성 동몽에게 글공부는 필수적으로 성취해야 할 목표였던 셈이다.¹¹⁾

동몽교육의 심화와 규범화는 일거수일투족의 세절을 마련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擊蒙要訣』 「持身章」의 ‘九容九思’ 부분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몸과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방법은 九容보다 더 친절한 것이 없고, 배움을 진보시키고 지혜를 더하는 방법은 九思보다 더 친절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아홉 가지 몸가짐과 아홉 가지 마음가짐을 행동 규범으로

10) 이경하 주해, 소혜왕후 지음, 『내훈』, 한길사, 2011, 246쪽 참조. “女子六歲, 始習女工之小者, 七歲, 誦孝經論語, 九歲, 講解論語孝經及女戒之類, 略曉大意. 今人, 或教女子以作歌詩執俗樂, 殊非所宜也.”

11) 성백효 역주, 현도완역 『명심보감』, 전통문화연구회, 2009 증보판, 참조

절목화하였다. 그러면서 ‘항상 九容과 九思를 마음속에 붙잡아 두어 자기 몸을 단속하여 잠깐 동안이라도 놓아 버리지 말 것이요, 또 이것을 앓는 자리의 귀퉁이에 써 붙여 놓고 때때로 눈을 붙여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것을 보면¹²⁾ 아동의 신체와 마음은 어느덧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정을 준수하도록 강화되어 있다. 九容九思의 18조목은 이 책뿐 아니라 『소학』, 『사소절』 등에서도 금과옥조로 인식되었다. 이 교과서적 규정이 준엄한 윤리강령으로서 현실화했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것이다.

유가 사대부 사회를 구현하자 했던 16세기의 노력은 17세기 이후의 조선후기에도 계속되었으며 동몽 교육이 추구한 모범적 인간상도 흔들림 없이 견지되었다. 주목되는 변화는 조선중기까지의 교과서적 규범이 후기에 들어 각 가문과 가법에 따라 家誡와 家訓으로 확산되는 추세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범적인 동몽을 꿈꾼다고 자식이 모두 부모의 희망에 부합할 수는 없는 것이 실상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덕무가 35세에 쓴 『士小節』을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집안 자제들을 교육하기 위해 쓴 이 책은 「士典」(남성), 「婦儀」(여성), 「童規」(동몽)로 나누어 일상의 ‘小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중 「童規」는 자손이 준수할 모범들과 더불어 현실에 대비했을 한심한 동몽의 백태를 서술하고 있다. 아래는 몇 구절을 임의로 발췌한 결과이다.¹³⁾

12) 성백효 역주, 『현도완역 童蒙先習·擊蒙要訣』, 전통문화연구회, 2010, 78~79쪽 참조.

13) 김종권 역, 이덕무 저, 『사소절』, 명문당, 1985, 273~320쪽. 이 번역본은 국립중앙도서관본 『사소절』(8권 2책)을 번역의 저본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예시문 외에도 「동규」에는 이덕무가 못마땅해 한 동몽 백태가 서술되어 있다. <動止>에서는 성질이 급하다, 배고픔을 못 참는다, 잘 씻지 않는다, 거짓말을 자주 한다, 계집종과 장난한다고 하면서 “교만한 아이는 어린이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였다. <教習>에서는 ‘갓 난 망아지를 잘 길들이지 않으면 천리마를 만들지 못하고 어린 소나무를 잘 북돋아 기르지 않으면 훌륭한 재목을 만들지 못한다.’고 했으며, ‘율곡 선생이 아이를 가르쳤던 17가지 조목’을 열거하며 위반 시에 벌주기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 쉬우므로 소설을 읽지 말라 하였으

(가) 어린이들은 경솔하고 수선스럽고 들뜨고 천박한 버릇이 많다. 그러므로 『주역』에서는 “무지몽매한 아이들을 기르고 가르쳐서 공명정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위대한 성인의 공적(蒙養以正 聖功也).”이라고 하였다.

- 「動止」 중에서

(나) 어릴 때는 어른의 가르침을 정성껏 지켜서 꾸지람과 종아리를 맞지 않는 것이 제일이고, 혹시 잘못된 일이 있어 어른이 벌을 주면 비록 피가 흐르는 데 이르더라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어른에게 거역하여 그 노여움을 도발해서는 안 된다. 어른이 종아리를 때리는 것이 어찌 좋아서 하는 것이라? 이는 대개 그 잘못을 뉘우치기를 바랄 따름인데, 대체 무엇을 원망하겠는가?

- 「教習」 중에서

(다) 어른이 시를 지으라고 명하면 무슨 사정이 있다고 핑계대거나 지연시키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 지어야 하며, 글자의 뜻을 자세히 물어야 한다.

- 「敬長」 중에서

(라) 아이들은 책읽기와 일하기를 싫어한다. 그런데 놀이는 가르치지 않아도 부지런히 한다. 장기, 바둑, 쌍륙, 골패, 투전, 윗놀이, 돈치기, 종정도놀이, 돌공던지기, 팔도행성 등을 환히 아는데, 부형들이 이를 칭찬 장려하고 잘 못하면 조롱하고 비웃는다. 이런 놀음은 정신을 소모시키고 의지를 어지럽히고 품행을 버리게 하고 심지어는 도박과 재산 탕진, 범법에 이르게 한다.

- <事物> 중에서

(가)는 ‘蒙養以正 聖功也’에 압축된 대로 미숙하고 결함 많은 동몽을 계몽해야 한다는 견해가 담겨 있으며, (나)에서는 어른들의 체벌은 아동의 잘못을 고쳐주려는 것이므로 동몽이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적었다. (다)는 시를 지으려면 핑계대지 말고 따르라 하였으며 (라)는 동몽

며 더럽고 음란한 책은 정신을 난잡하게 한다고 경고하였다. 『격몽요결』과 『소학』을 정독하라 권했고, 주자가 아들 교육을 위해 조언한 내용, 즉, 주자의 <與長子受之>의 핵심을 간추려서 몸가짐과 책읽기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런 저런 일을 경계시킨 <事物>에서는 동자가 담배를 즐기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는 조목이 있어서 당시 동몽들의 흡연 실태를 가늠해볼 수 있게 한다.

이 좋아하는 유희와 놀이를 질색하듯 경계시켰다. 바둑, 씨름 등의 놀이가 공부하는 사람의 정신을 소모시키고 때로는 악습의 사단이 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자기 가문의 자손을 향한 이덕무의 이 자분자분한 가르침은 그것 자체가 이미 가문에 적용되어 가던 동몽 교육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런데 가문 교육의 현장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음성은 그 강도와 방식이 다를지언정 조선 후기 한문학의 여러 장르에서 산견된다. 자손을 타이르는 責子詩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식에게 부친 서신 안에 자손이 지켜야 할 가법과 규범이 제시되기도 하였고, 한편으로는 각종 家誡, 家訓, 訓家, 遺言 등을 통해 父命을 환기시킬 만큼의 강도 높은 훈계가 전달되기도 하였다. 여기서는 李匡師 가문의 사례를 들어 그 일단을 들여다 보기로 한다.

다정다감한 아버지이자 문인이었던 이광사가 1755년에 역모의 누명을 쓰고 함경도 부령에 유배되었을 때, 그는 賜死를 갖 만한 상태에서 생의 마지막일 수 있는 편지를 서울의 집으로 보냈다. 아내가 자결한 후였기 때문에 집안에는 10대 후반의 아들인 이영익과 이공익, 그리고 7세 무렵의 딸이 수신자일 수밖에 없었다.¹⁴⁾ 이 중 1756년 5월 12일에 작성하여 딸에게 보낸 <여아에게 보내는 말(寄女兒言)>을 보면 이런 대목이 눈에 띈다. 정양완의 번역을 참조하여 간추린다.¹⁵⁾

(가) 날마다 일찍 일어나 요와 이불을 제 손으로 개어 일정한 자리에 두고,
비를 내려 잔 자리를 깨끗이 쓸고, 머리는 얼레빗으로 가리고 빗을 담아

14) 『斗南集』 제1책의 <亡妻孺人文化柳氏紀實>, <到富寧謫所後寄在京子姪書二條>(5.8), <訓家篇>(5.22), <寄幼女二首>(8.21), <祭柳氏墳前書>(9.9), <答女兒西菴子>(9.23), <婦女思>(12.10) 등이 1755년 유배지 부령에서 지어졌다.

15) 정양완, 『江華學派의 文學과 思想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339쪽, 번역 재인용.

넣어라. 더러 거울을 보고 눈썹과 살쩍을 죽집게로 뽑고, 빗살을 깔끔히 쳐서 빗 때를 말끔히 없애고, 낫 씻고 양치하고 다시 이마와 살쩍을 빗질로 매만지고 빗 상자를 정리하라. 세수 수건은 늘 제자리에 두고, 무릎 꿇고 앉아 한글 한 번 죽 읽고, 한자는 약간 정한 대로 읽어라. 새언니에게 배울 때 먼저 바느질하기 쉬운 것이나 숨 두고 숨 피는 일 따위부터 배워 보고, 음식은 알기 쉬운 간 맞추기, 삶기, 고기 저미기, 생선 배 가르고 채치기를 배우고, 나무새, 젓갈, 김치, 장 담그기 따위도 마음 여기 알아 두라.

(나) 밥상이 오면 무릎을 모으고 공경스레 먹고, 먹은 뒤에는 단정히 무릎 꿇고 앉아 조금 있다가 한글 두 줄과 한자 한 줄을 베껴라. 벼루를 거두어 한자리에 두고, 규정대로 두 오라비에게 문자 약간을 가르쳐 달라 하고, 바느질 등 여러 가지를 복습해라. [중략] 이밖에 빠뜨린 말은 두 오라비에게 여쭙어 써 달라 하라. 이렇게 부지런히 행하면 멀리 떠나 있는 늙은 아버지가 기뻐서 시름도 잊을 것이요, 또한 인자한 어미의 뉘트 위로 받을 수 있으리라.

비참한 상황에서 어린 딸을 향해 보낸 편지인 만큼 그 목소리가 다정하고 부드럽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덕무의 『사소절』에 나오는 소절을 연상시킨다. 몸가짐과 몸단장, 가사 배우기, 문자 학습, 집에서의 처신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타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광사는 특히 이 딸을 사랑하여 부령 유배지에서 장편의 편지시를 몇 차례 보낸 적이 있거니와, 이 글에 등장하는 여아는 이광사가 바라는 이상적인 여성 동몽의 한 모습이다.

부드러운 어조로 당부한 이 편지는 情을 중요시한 이광사의 문학과도 맥이 닿는다. 하지만 이런 부드러움과 달리 가문의 장자로서 가졌던 엄숙한 음성도 더러 발견된다. 그는 어머니 파평 윤씨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를 가르침에는 문득 옛 교훈에 따라 매양 九思 九容을 들어 외워 익히게 하였으며 잘못이 눈에 띄이면 매섭게 책망하였다’¹⁶⁾고 하였고,

자질들에게 보낸 <寄子姪書>(1755)에서는 ‘집안이 이 지경으로 망했으니 자제들은 더욱 더 효제에 독실하고 예의를 힘써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遺訓을 실추시키지 말라(家勢覆滅至此, 子弟又當益篤孝悌, 各勵禮義, 無墮世傳遺訓.)’¹⁷⁾고 준엄하게 당부하였다. 특히, 1755년 5월 22일, 이공익과 이영익 두 아들에게 보낸 <訓家篇>에 이르면 그 목소리가 유언에 준하는 父命 차원의 분위기를 띠고 있다. 병든 몸에서 자손들이 그림자처럼 다가오면서 쓴 이 90운의 장편고시는 전반부에 전주이씨 덕천군파로서의 자랑스러운 가문사를 서술하면서 충효 명가의 자손임을 환기시킨 다음, 집안을 나락에 빠지게 한 데 대한 회한, 가승에 전하는 덕행을 본받아 忠君孝親의 家法을 지켜나가 달라는 당부 등을 거쳐 마지막에는 이렇게 끝맺고 있다.

너희들이 만약 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지 않고, 그저 옷이나 잘 입고 배나 불린다면, 너희들이 비록 아무리 많다면들, 어찌 개나 닭이 번성하는 것과 다르다 하겠느냐? [중략] 이것은 애통한 나의 말이며, 글자글자마다 눈물의 흔적이니, 서로 베껴 가슴에 지니고, 번역하여 며느리와 딸에게도 보여주거라.¹⁸⁾

이 마지막 단락은 遺命을 환기하는 절박한 당부로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수신자가 딸이 아닌 가문을 승계할 아들로 바뀌자 그 음성이 매우 강경하게 바뀌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잔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위기일수록 더 강건해져야 한다는 당부이겠지만, 이런 문맥과 발언 자체가 당시 사회에서 통용된 부자의 관계를 약여하게 보여준다. 파탄

16) 정량완(1995), 위의 책, 22쪽, 번역 재인용.

17) 정량완(1995), 위의 책, 371~372쪽.

18) 李匡師, <訓家篇>, 『圓嶠集選』, 한국문집총간 221. “吾訓不珮銘, 美服而飽饋, 汝曹雖衆多, 何別鷄狗蕃. [중략] 人若自京來, 言汝行謹謹, 群居講經術, 斂跡守田園, 吾始展愁眉, 中心甚權忻, 雖死目可掬, 亦忘作羈魂. 是余哀痛言, 字字涵淚痕, 相謄置懷中, 讎示及諸媛.”

의 귀책이 본인에게 있다 해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명을 내릴 수 있었으며, 이 아버지의 외침을 어길 경우 그의 자식은 ‘개와 닭’만도 못한 존재로 비유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때의 ‘鷄狗’ 즉 ‘禽獸만도 못한 자’는 당시의 현실에서 자식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치욕스러운 형상이었으리라 생각된다.

訓家の 맥락에서 발화된 이광사의 이런 준엄함은 조선후기 상황에서 그리 낯선 것이 아니었다. 유배지에서의 정약용은 이광사의 사례와 유사함을 보이는데, 그도 아들 정학연과 정학유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가법을 환기시키며 엄숙한 훈계를 강박했음이 확인된다. 술 마시는 법, 거주지 고르는 법, 학문하는 법, 가문을 중흥시키는 법, 학문하는 법 등을 하나하나 계도하고 있는 그의 모습은¹⁹⁾ 이광사나 이덕무의 자손 교육과 공통되는 현상이라 이해될 수 있다. 여기에 안정복이 장가가는 16세의 아들 안경증에게 ‘부부 사이에라도 함부로 친하기만 하고 예와 공경을 잃으면, 자칫 禽獸가 되고 자신의 이름을 망치며 가문을 실추시키게 된다.’고 충고한 바를²⁰⁾ 상기하면, 자식을 향한 부친들의 훈계가 가문 대소사의 상황에서 꼭절하게 베풀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친들이 극도로 경계하며 꺼내든 발언에는 자식이란 결코 禽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자식의 입장에서 보자면 禽獸는 곧 자식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타락한 형상이었던 셈이다.

3. 예비 작가로서의 동몽: 신동 시인에서 야심찬 저술가까지

자식이 특출한 작문 능력을 갖기 바랐던 갈망에 맞추어 조선의 동몽은 어려서부터 시문 연습을 피하기 어려웠다. 「童規」에서 어른들이 시를 지

19) 김상홍, 『아버지 다산』, 글항아리, 14~113쪽 참조.

20) 安鼎福, <書與學兒>, 『順菴先生文集』 권9, 한국문집총간 229.

이라 하면 회피하지 말라 했던 것처럼, 한시의 습작은 장차 과거시험의 관문을 대비한 것이자 문인으로서의 교양을 쌓는 계단이기도 하였다. 조선전기에도 『推句』나 『百聯抄解』 등을 출판하여 동몽의 작시 능력을 함양하려 하였거니와, 조선후기에 이르면 가족과 가문의 시회에 동몽이 참여한 사례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15세기 김시습이 5세에 시를 지어 五歲 神童으로 전설화했던 것처럼 조선후기의 詩話集, 漫錄, 文集 등에는 시 잘 짓는 신동에 관한 기사가 적지 않게 수록되었다. 예컨대 홍만종의 『小華詩評』 맨 끝에는 요절한 시인 12인을 들었는데, 9세에 시를 지은 崔澱은 ‘世稱仙才’라 하였고, 차천로의 동생 車殷輅는 ‘時號奇童’, 14세에 시를 지은 沈安世는 ‘世稱奇才’라 칭송되었다. 동몽의 작가가 가문 차원을 넘어 시대의 천재로 회자되는 상황을 이 시화가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시 잘 짓는 신동의 출현은 문인사회에서 폭넓게 미담이 되었다. 『어우야담』에 실린 蔡壽-蔡無逸 祖孫의 이야기와 『소화시평』에 수록된 李慶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²¹⁾ 채수-채무일은 15-16세기의 인물들이지만 유몽인이 시화를 짓는 17세기 초기까지 이런 유의 이야기가 유행하고 있었음을 알게 한다. 설화적 가공을 감안한다 해도 아버지와 아들, 할아버지와 손자가 이렇게 척척 대를 맞추어 시를 짓는 장면은 부러움과 찬탄을 부르며 독자를 흐뭇하게 하는 매력을 간직하고 있었다.

막힘없이 시를 짓는 신동이 문집에 흔적을 남기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정경주가 보고한 9세 동자 조감동의 시집인 『조동자유고』²²⁾는 실물로 전하는 희귀한 사례이며, 22세 이전에 요절한 시인의 시집 10종을 목록화한

21) 유몽인 지음, 신익철 등 옮김, 『어우야담』, 돌베개, 2011; 홍만종 지음, 안대회 옮김, 『소화시평』, 성균관대출판부, 2016 참조.

22) 정경주(1988)의 보고에 따르면, 36장 분량의 이 문집은 동자 조감동이 9세에 요절한 뒤 5년이 지나 1756년, 숙부 조세구가 현감으로 있던 해남에서 판각되었다고 한다.

안대회의 보고처럼²³⁾ 요절한 자식에게서 부모가 거두어두고 싶은 마지막 흔적도 또한 다름 아닌 망자의 시문이었다. 유만주는 15세에 사망한 아들 兪九煥의 『默菴零藁』를 남겨두려 했고, 오광운은 9세에 사망한 자식 오창석을 기려 쓴 1420자의 <述哀>에서 끝내 버릴 수 없는 것이 아들 필적의 시집 한 권이라고 적었다. 정약용은 어릴 적에 자신의 시문집 『三眉子集』을 손수 만들었노라고 술회하였으며, 채제공이 8세에 사망한 아들 채홍신을 기려 쓴 <庶子弘愼瘞誌>에서도 관 속에 넣어준 필묵과 종이의 사연을 특기하였다. 이 예화들은 모두 동몽기의 문인 신동, 즉 글공부 방면에서의 무한한 가능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시집의 유무와는 별개로, 동몽기의 남다른 작시 능력을 특기한 사례들은 훨씬 많다. 이이, 허봉, 이산해, 이경전, 남구만, 오상렴, 김승겸, 이현경, 목만중 등을 위시하여, 현전 시집에 다수의 동몽 작품을 남긴 이로 尹楹, 姜浚欽 등을 들 수도 있다. 『한국문집총간』 소재 동몽시를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그 수량은 대략 100여 수가 되며 별도 추가된 한시 100여수도 언급되고 있다.²⁴⁾ 이들 동몽의 한시는 꾸밈없는 순수함, 성인도 놀랄 기발함 등의 미덕을 보유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시 잘 짓는 동몽이 신동과 천재로 인상화되었다는 그 경향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시각을 약간 바꾸어 보면 조선후기에는 한시 작가로서의 동몽 외에도 동요의 향유층 또는 의욕적인 산문저술가로서 동몽이 등장하였다. 김상숙의 한역 민요 속에 등장하는 동요 향유층은 넓은 의미에서 작가층의 성격을 겸하고 있으며, 『河濱先生年譜』의 저자 신후담은 동몽기에 이미 예사롭지 않은 습작을 다수 남겨두었다. 먼저 신후담의 사례부터 살펴보기로 한다.²⁵⁾

23) 안대회(2014), 앞의 논문, 123쪽.

24) 김미희(2006), 앞의 논문, 20~24쪽. 그는 3세에서 13세까지를 아동기로 잡아 자료를 조사하였다.

고려대 육당문고 소장의 『河濱先生年譜』에 따르면, 서울 동부 낙선방에서 출생한 신후담은 5세에 글자를 배우기 시작하여 6세에 朴世興을 속사로 모셨다. 이때 부친의 가르침을 모아 『趨庭記聞』을 엮었다고 한다. 10세에 『史略』과 『通鑑』을 숙독하였고 12세에는 『楞嚴經』과 『兵學指南』을 초록하며 읽었다. 12세에는 姜樸과 부친 愼龜重과 배행하여 臨湍의 赤壁을 유람하는 중에 <赤壁歌>, <夢仙歌>, <怪木賦> 등을 지었다고 하였다.

흥미로운 대목은 13세(1714년) 당시의 기록이다. 당시 그는 과주 交河 金尺里의 향저에서 공부하며 호를 金華子라 했는데, 도가에 관심을 가져 『金華外篇』, <續列仙傳> 등을 짓고, 이와 더불어 <續搜神記>, <太平遺記>, <龍王記>, <海蜃記>, <遼東遇神記>, <紅粧傳>, <奇門圖說>, <文字抄>, <雜書抄>, <隨筆錄>, <經說>, <雜錄> 등을 지었다고 하였다. 연보에서는 이에 대해 ‘方外の 文字에 범람하였으나 早年博通한 것이 이와 같았다’고 평하였다. 14세의 활약은 더했다. 사서삼경을 백 번 읽었다고 한 이 해에 그는 <讀書錄>, <物外勝地記>, <察邇錄>, <物産記>, <動植雜記>, <海東方言>, <俗說雜記>, <衆籟通記>, <白果志>, <四韻艱字抄> 등을 지었다. 老莊에 매료되어 <續道家>, <玉華經> 등 30여 편을 남겼다고도 한다. 두 해 뒤인 16세에는 <穀譜>, <歲時記>를 지었으며 이 해 7월에 충주 사람 吳尙億의 딸과 결혼했다. 요컨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소설을 비롯하여 수십 종의 각종 산문을 저술해낸 것이다.

신후담의 사례를 18세기의 평균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 의욕적인 학동은 동몽기의 저술과 관련하여 어떤 욕망을 갖고 무슨 글쓰기를 할 수 있었는지를 기늩케 한다. 12세의 유람 중에 썼다는 시부는 그

25) 이하는 김동준, 「성장기 愼後聃의 지적 욕망과 『河濱雜著』」, 『민족문화연구』 62, 2014, 153~179쪽 참조.

들 시대의 일반적 정황을 시사하고 있다. 가령 1747년에 강세황이 그린 <玄亭勝集圖卷>의 맨 끝에는 이날 모임에 참석한 12세의 자제 柳燿이 지은 한시로 마무리되어 있다. 더욱 관심을 끄는 것은 신후담 13-14세의 글들이다. 재미있는 책을 좋아했던 때문인지 그는 13세에 小說類로 분류할 수 있는 <續搜神記>, <太平遺記>, <龍王記>, <海蜃記>, <遼東遇神記>, <紅粧傳> 등을 지었다. 유감스럽게도 스스로 과기한 이때의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이에 비해 지적 관심을 확장한 14세의 저작물이 현전하고 있는바, <物外勝地記>, <察邇錄>, <物産記>, <動植雜記>, <海東方言>, <俗說雜記>, <衆籟通記>, <百果志> 등은 당시 조선의 승지, 속담, 물산, 동식물, 방언, 곡식, 풍속 등을 글감으로 삼은 것이다. 초보적 수준에 불과하다 해도 백과전서적 경향 그리고 자신의 생활환경과 글쓰기의 내용을 연결시키려는 성향을 간취할 수 있다. 16세에 쓴 <곡보>와 <세시기> 또한 조선인으로서의 삶의 환경에 연결된 지식들이다.

절록이든 저술이든 신후담의 글쓰기가 환기시키는 바는 성년에 가까워 질수록 그 자신이 저술에 대한 의욕을 갖는다는 점이다. 초보적 습작과 편집, 연습과 저록을 거쳐 그는 점차 저술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이 생활환경에 대응되는 재료를 글감으로 활용하였다. 기발한 시 한 편으로 신동의 명성을 날리는 것과는 다소 결이 다르고 사회적 인정과 보상도 그만큼 주어지지 않았지만, 자신의 지적 욕구에 맞추어 산문 저술에 대비해나가는 적극적인 學童도 작가로서의 동몽을 구성하는 한 형상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동몽의 동요 향유와 관련하여 김상숙의 <海東俚謠>를 주목해보기로 한다. 金相肅(1717-1792)은 金長生의 후손으로서 <사미인곡>을 한역해들 만큼 鄭澈의 가사에 관심이 높았던 문인이다. 규장각 소장 『續日知錄』에 <海東俚謠>(1784년작 추정)라 하여 그가 한역한 동요 2편이 실려 있는데 그중 하나를 들어본다.²⁶⁾

저 언덕에 뭐-게 / 갈대! // 갈대는 하애 / 하이면 늙은이 // 늙은이는 구부정
/ 구부정하면 안장 // 안장에는 네 구멍 / 네 구멍은 시루 // 시루는 꺼때 / 꺼따
면 까마귀 // 까마귀는 날뛰지 / 날뛰면 무당 // 무당은 때리지 / 때리면 대장장
이 // 대장장이는 팍 잡지 / 팍 잡으면 가재 // 가재는 구멍에 숨지 / 구멍에
숨으면 뱀 // 뱀은 물지 / 물면 범 // 범은 뛰지 / 뛰면 벼룩 // 벼룩은 빨강지
/ 빨가면 대추 // 대추는 달지 / 달면 엇 // 엇은 이에 붙지 / 붙으면 집 / 붙으면
내 침이지!

彼岸何物, 管叢. 管叢則白, 白者老翁. 老翁則背曲, 背曲者鞍. 鞍則四孔,
四孔者甌甌. 甌甌則黑, 黑者烏. 烏則颺舞, 颺舞者巫. 巫則扣打, 扣打者冶.
冶則執, 執者螯. 螯則入穴, 入穴者蛇. 蛇則咬, 咬者虎. 虎則跳, 跳者蚤. 蚤則
赤, 赤者棗. 棗則甘, 甘者飴. 飴則齒之黏, 黏者接也. 接則吾之妾也.

이 작품은 전래 동요 ‘별 하나 나 하나’를 소재로 삼은 崔成大의 <古雜
曲> 한 수와 李種徽의 <七夕謠> 등을 연상하게 만든다. 18세기 전반기
에 향유된 동요의 저변과 동요의 보존 욕구를 짐작할 수 있게 하기 때문
이다. 김상숙이 한역한 위 <알강달강>도 당시의 아이들이 불렀던 노래를
시인이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라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작품 뒤에는 흥미로운 부기가 적혀 있다. 즉, “우리나라 아이
들은 갓 말을 할 줄 아는 때부터 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아이가 없다.
말이 비록 촌스럽기는 하지만 말을 이어붙이는 법이 古文과 비슷한데다
가 음운이 맞는다. 아마도 남녀가 서로 희롱하는 노랫말인 듯하다.(東人
小兒, 纔能解語, 則未有不能爲此謠者. 語雖鄙俚, 其敘辭之法, 類古文,
自叶音韻, 似是男女相調戲之詞也.)”를 보면, 말을 배울 무렵부터 대부

26) 金相肅, 『續日知錄』. 다른 작품은 “市栗一升, 上置于懸架. 玄首鼯鼠, 盡剝食. 餘
一顆, 殼則與父, 皮則與母, 吾與女(장에서 산 밤 한 되를 / 살강 위에 놓았더니 /
머리 까만 새앙쥐가 / 홀랑홀랑 다 까먹고 / 겨우 한 톨 남았는데 / 껍질일랑 아비
주고 / 보늬일랑 어미 주고 / 너랑나랑은 알맹이 먹자.)”이다.

분의 아동들이 이 노래를 즐겨 불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역 이전의 <알강달강> 원작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조선의 동몽들은 적극적인 향유층을 넘어 이 노래의 작가층으로 상정할 여지도 남게 된다. 어쨌든 김상숙, 최성대, 이종휘 등의 동요 한역시의 저편에는 향유층과 작가층을 특별히 분간할 필요가 없는 동몽의 활동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4. 작중 인물로서의 동몽과 그 형상

: 귀한 자식에서 버려진 아이까지

동몽 탐구와 관련하여 조선후기 한문학에서 주의할 현상은, 한시와 민요 외에도 祭文과 墓誌(壙誌 壙銘 瘞誌), 서신과 일기, 필기와 잡록, 전과 행장 등에 걸쳐 동몽 관련 장르가 대폭 확장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17세기 후반부터 묘지, 제문, 哀詞 등 조물 자손을 위한 장르가 대폭 확산하고, 일기, 서신, 필기 산문 등에서도 동몽 소재가 빈번해지는바 아래 인용하는 작품들도 이러한 토대 변화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

1) 아련하고 사랑스러운 자식들

조선후기 한문학에 등장하는 작중 동몽 대다수는 특정인의 자식과 자손으로 등장하며 그 횡수도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다. 동몽기의 아들, 딸, 손자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문집이 오히려 소수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애뜻하고 사랑스러운 자식을 부각한 작품들은 다음의 조건에 놓일 때 더욱 현저해진다.

첫 번째, 예기치 않게 자식과 격리되는 상황이다. 생사를 가르는 사별의 격리뿐 아니라, 유배로 말미암은 생별의 헤어짐도 자식을 그림계 하는 효과를 낳는다. 특히, 요절 자식을 주인공으로 하는 제문과 묘지, 애도시

와 일기 등은 애통함과 더불어 그리움이 절절하게 섞여 있다. 17세기 후반부터 등장하는 동몽의 묘지, 광명 등에는 마치 추억 속에서 꺼내는 사진처럼 기억에 각인된 자식의 형상이 어김없이 삽입되어 나타난다. 무서운 사부 같았던 부친들조차도 자식이 사망하면 전혀 다른 감성적 태도로 제문을 짓기도 하였고, 유일한 가문 승계자가 사망하면 하염없는 안타까움으로 어린 자식을 그려내곤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식적으로 죽은 자식을 혼계하는 글이 성립될 수 없다.

두 번째는 딸과 아들을 향할 때의 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유언의 순간에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근엄함이 보존되기 일쑤였다. 그런데 유배지에서 이광사나 정약용이 그랬듯이 준엄해 보였던 아버지가 어린 딸에게는 다정한 아버지로 전환되곤 하였다. 아들에게 가문의 운명을 당부했던 것과는 달리, 딸에게는 미안함을 표현하는 장면이 적지 않게 발견되는 것이다.

세 번째, 자식에 대해 다감함을 잘 표현하는 작가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김창협처럼 자식에 대한 애정 표현이 익숙한 작가에게서 이런 계통의 작품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와 더불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보내는 시문에는 다정한 묘사의 확률이 더 높아진다. 훈육의 필요에 의해 조부가 손자에게 매정함을 보이는 경우도 없지는 동몽기의 손자와 손녀는 대체로 천진난만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형상화되었다.

관련 작품들이 매우 풍부한 상황이므로 여기에서는 딸과 아들의 경우를 적출하여 실상을 엿보기로 한다. 먼저 딸을 대상으로 한 작품으로, 1801년 장기 유배지에서 쓴 정약용의 <憶幼女>를 보자.

어린 내 딸아이 단오가 되면, 옥빛 같은 살결 씻고 단장도 새로 했지.
 붉은 모시 베로 치마 해 입고, 푸른 창포를 머리에 꽂았었지.
 질 할 때의 그 단아했던 모습이며, 술 올릴 때의 그 상냥했던 표정.

오늘은 5월 5일 단오날 저녁, 누가 이 어여쁜 딸[구슬]을 사랑해줄까!

幼女端陽日, 新粧洗玉膚. 裙裁紅苧布, 髻插綠菖蒲.

習拜徵端妙, 傳觴示悅愉. 如今懸艾夕, 誰弄掌中珠.²⁷⁾

유배 1년차에 남긴 이 작품에는 어린 딸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하다. 매년 단오가 되면 곱게 단장하고 술을 올렸던 그 딸을, 오늘은 유배지에서 하릴 없이 추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라 그만큼 아련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부각되어 있다.

이광사의 사례를 추가하면 이런 경향은 더 분명해진다. <이월 그믐날 감기에 걸려 침상에 엎드려 있는데 어린 딸이 배나 그리워서 정을 어쩔 길 없다. 무릎에 감기며 옷자락을 끌던 사랑스런 모습이 눈에 선하다. 병을 견디며 누운 채 글을 써서 인편을 구해 멀리 보낸다. 다하여 500자이다(二月晦日, 感疾伏枕, 倍念幼女, 情不自聊, 繞膝牽裾, 嬌憐在目, 強病臥草, 須便遠寄, 凡五百字.)>라는 긴 제목의 시 또한 1756년 2월 그믐, 부령에 유배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는 시점에 쓴 장편고시이다. 이 시에서 묘사된 어린 딸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어여쁜 존재로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²⁸⁾ ‘어린 딸의 목소리, 용모, 자질이 너무나 사랑스러웠기에 사람들마다 안아 주었고, 그렇기에 나는 외출이나 손님맞이조차도 좋아하지 않았다’²⁹⁾고 한 진술에 걸맞게 이 작품은 그림고 아련한 어린 딸의 형상화에 집중하고 있다.

27) 丁若鏞, <憶幼女>, 정본 『與猶堂全書』 시집 권4, 한국고전번역원 DB.

28) 李匡師, 『斗南集』, “日夜不遠我, 雜戲見無害. 草葉瓜成纈, 號錦事買賣. 明沙爲珠玉, 綵紙爲衣帶. 木片架棟宇, 盥底撐鼎鼎. 必有小夫婦, 長立奠內外.[중략] 器多楸栗殼, 飯孟用蛤介. 將是孝悌端, 笑受不喝退. 聊戲若餽啜, 誇腹如鼓大. 舉態便撻鬚, 羞媿盤盡碎. 復恐嬌癡過, 行實勤教誨.”

29) 李匡師, 『斗南集』, “老者有弱女, 慈念固無怪. 聲音何其清, 容姿何多態. 性質何其慧, 藝能何多解. 過人皆一抱, 爲父當底愛. 所以在家日, 日日恒居內. 不有不得已, 往還幾成廢. 有客來竟日, 吾心鬱不耐.”

정약용과 이광사의 시는 송시열이나 안정복 등이 시집가는 딸을 훈계한 戒女書 계통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는 결혼과 유배의 상황 차이에서 발단을 찾을 수 있거니와, 죽음이 가르는 사별의 경우라면 어린 딸은 더욱 절절한 그리움의 대상으로 형상화된다. 대표적인 예가 김창협이 그의 딸 金雲(1679-1700)을 추억한 <亡女吳氏婦墓誌銘 并序>이다.³⁰⁾ 김창협은 1679년에 부친 김수항이 유배를 당하자 영평의 白雲山으로 들어가 이 딸을 낳고 白雲에서 구름을 취하여 雲이라는 한 글자 이름을 지어주었다. 부녀는 1680년의 경신환국 때에 서울로 귀환했다가 1689년의 기사환국에서 김수항과 송시열이 숙청되자 다시 백운산에 은거하였다. 이 묘지명에는 이러한 비극적 사연과 더불어 당시 열한 살이었던 딸과 함께 공부했던 부녀지간의 추억, 『論語』와 『尙書』를 가르치며 고금의 치란과 성현의 언행을 함께 논했던 기억이 아로새겨져 있다. 김창협의 진술에 의하면 이 불행한 백운산 시절에 자신을 가장 기쁘게 한 사람은 흰 구름이라는 뜻의 이 딸 ‘雲’이었다고 한다.

조물한 딸을 애도하며 그리워하고, 추억하며 그려내는 작품들은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李夏坤의 <哭鳳惠文>, <亡女鳳惠壙誌>³¹⁾는 요절한 딸 봉혜에 대한 부친 이하곤의 애정이 애절하게 배인 글이며, 심익운이 총명한 셋째 딸 芍德이마저 잃고 남긴 시 <喪兒後, 初出湖上, 悲悼殊甚, 詩以志之>³²⁾와 그 발문도 사별한 딸에 대한 아련한 사랑을 전하고 있다. 이 속에는 주로 용모단정하고 사려 깊었던 딸에 대한 인상이 부각되어 있다.

한편, 아들을 수신자로 한 작품들은 딸을 대상으로 한 작품군보다 그

30) 金昌協, <亡女吳氏婦墓誌銘 并序>, 『農巖集』 권27, 한국문집총간 162.

31) 李夏坤, 『頭陀草』 제12책, 한국문집총간 191.

32) 沈翬雲, 『百一詩集』, 서울대 소장본. 김동준 번역, 『겨울을 향하는 풀벌레 울음처럼』, 태학사, 2017, 412~415쪽 참조.

수량이 압도적으로 많다. 특히 아들의 죽음을 회상하며 동몽기의 재능, 용모, 성품, 행실 등을 묘사한 시문의 비중이 매우 높다. 이제, 아들에게 헌신적이었던 俞晩柱(1755-1788)의 사례를 들어 대표적인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유만주는 13년 동안 꼬박꼬박 『欽英』이라는 일기를 남긴 문인인데 이 저작 일기를 절필하게 된 것도 아들 俞久煥(1773-1787)의 사망에서 말미암은 것이었다. 15세의 아들 구환의 죽음, 그것은 부친 유만주에게 생의 절망을 안기는 충격적 사건이었다. 아래는 아들을 장사지내고 다시 그의 무덤으로 찾아가며 쓴 1787년 8월 14일의 기록이다.

올해 너에게 관례를 치러주고 너를 혼인시켜 아내를 두게 하고 너에게 『시경』을 공부하게 하고, 너를 네 외가에 보내 『대학』이며 『중용』을 배우게 할 생각이었다. 예전에 생각했던 것 가운데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몽상에 잠겨 있으면 예전에 생각했던 것이 눈앞에 나란히 늘어서니 이 과연 무슨 일이나?

아마도 너의 병은 처음부터 꼭 죽어야 하는 병은 아니었을 것이다. 애초에 꼭 죽을병이 아니었는데 결국 너를 죽게 했으니 어질지도 못하고 자애롭지도 못한 나의 잘못은 참으로 저 밝은 하늘과 저 두터운 땅속까지 사무친다. [중략] 나는 위로는 정자, 주자와 같은 학문이나 한유, 구양수와 같은 문장이 없기에 너의 뜻을 환히 드러내고 너의 행위를 현창하여 후세에 전하고 사람들이 애석한 마음을 갖게 하지도 못한다. [중략]

슬프고 슬프구나. 너는 뜻이 정대하여 사특한 일은 범한 적이 없었고, 너는 행실이 반듯하여 어긋난 일이라곤 한 적이 없다. 너는 배움에 집중했기에 점차 향상되었고, 너는 재주가 도타웠기에 경망스럽고 부박한 자들과는 같지 않았다. 나는 늘 네가 자라면 무언가 해낼 거라 생각했으니 그건 바로 너에게 이 네 가지 훌륭한 점이 있기 때문이었다.³³⁾

6월에 廣州 선산에 구환을 장사지내고 두 달 뒤에 다시 찾아가면서 술

33) 박동욱(2017), 앞의 책, 42쪽 번역 재인용.

회한 일부이다. 인용문에는 이제는 못다 하게 된 학업, 아들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과 아들의 생애를 전하고 싶은 소망, 경박하고 부박한 다른 자식들과 달랐던 아들의 성품, 행실, 재능, 그리고 아들이 큰 인물이 되기를 바랐던 기대감이 표현되어 있다.

제시문은 아들의 죽음 뒤에 남겨져 아들을 회상하는 아버지들의 심정을 대변하여 보여준다. 요절한 아들이 실현시키지 못했던 비범한 가능성은 그의 특별한 자질과 총명함 등을 필수적으로 환기시킨다. 유만주가 든 아들의 네 가지 훌륭한 점은 아버지가 관찰한 동몽 아들의 빛나는 가능성이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이런 가능성이 태아에게조차 부여되기도 한다. 예컨대 정범조의 연작시 <祝腹兒>를 보자.³⁴⁾ 기린아가 우리 집에 태어나 가문을 번성시키고, 총명한 이 아이가 산하의 수려한 기운을 타고 나와 빛나는 별과 같은 문장의 재능을 펼치고, 인자한 자질을 품어 인생의 복록을 다 누리기를 고대한다는 정범조의 염원은 아들 구환에 대한 유만주의 갈망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유만주와 정범조의 예에서 보듯이, 사대부가의 남자 동몽은 태아에서 嬰兒, 幼兒, 稚兒, 成童에 이르기까지 고대되는 자질이 거의 유사했다. 자식에 대한 염원을 기록한 자료들은 대체로, 남다른 자질을 타고나 비범한 문장력과 학문 능력을 발휘하여 장차 가문과 국가를 빛내는 인재로 성장하는 것, 이것을 기본 맥락으로 삼았다. 자식에 대한 墓誌와 哀祭를 여러 편 남긴 김창협도 요절한 아들 金崇謙을 그리며 <亡兒生日祭文>, <亡兒初葬祭文> 등의 제문을 남겼거니와,³⁵⁾ 이 속에는 남달리 총명했던 아들의 유년 서술은 물론이요 ‘하늘이 너를 낳은 우연한 일이 아닐 것이니, 필시 큰 인물이 되어 나라에 쓰일 것이요 한 집안을 빛내는 정도에

34) 丁範祖, <祝腹兒>, 『海左集』 권2, 한국문집총간 239. 박동욱(2014), 앞의 책, 42~47쪽 참조.

35) 박동욱(2017), 앞의 책, 189~207쪽 참조.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아쉬운 독백이 특기되어 있다.

자식의 무한 가능성을 안타깝게 회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당파와 지역을 떠나 한문학 장의 여기저기서 발견된다. 9세에 사망한 아들 吳昌錫을 위해 지은 吳光運의 애절한 <述哀>, 8세에 죽은 서자 蔡弘愼을 기린 蔡濟恭의 눈물겨운 <庶子弘愼瘞誌>에서도 김창협과 닮은 음성을 들을 수 있다.³⁶⁾ 특히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기록에는 비범했던 문재에 대한 회상이 잦게 나타나는데, 그런 연유로 요절한 아들이 남긴 시문집, 필적, 문방구 등이 부조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유만주의 일기에서 『시경』, 『대학』, 『중용』을 배우게 할 계획이었다는 위의 기록도 이런 사정을 간취하게 한다. 요컨대, 동몽기에 사망한 아들을 기린 무수한 기록들에는 비상한 자질과 성품, 미처 文才 등의 가능성을 다 발현하지 아쉬움을 기본 요소로 삼고 있는바, 봉황과 기린아로 은유될 수 있는 동몽의 형상이 부모의 회상을 관통하고 있었던 것이다.

2) 위기를 극복하는 비범한 아동들

자신의 의지와 지혜로 위기와 불행을 극복해나가는 동몽의 형상이 한문학 분야에서 간추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계통이다. 이들은 시보다는 산문 특히 서사성이 강한 작품에서 주로 발견되며, 주인공의 어린 시절 행적이 종종 이와 연관되어 특기된다. 박지원의 <廣文者傳>을 예로 들자면, 아사한 친구를 남몰래 장사지내주는 아동기의 삽화, 약국 점원으로 서 태연히 절도 혐의에 대처하는 성동기의 삽화가 운명을 헤쳐 나가는 광문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게 한다. 이런 서사적 구성은 영웅소설에서의 주인공이 기아, 살해, 유기 등의 위협에서 벗어나 영웅으로 성장해나가는 유년의 궤적과도 중첩된다.

36) 박동욱(2017), 앞의 책에 오광운, 채재공의 항목 참조.

<광문자전>과 빗대어 볼 수 있는 작품으로 盧命欽의 <광동(狂童)>³⁷⁾이나 여러 야담집을 출전으로 삼는 <김대갑> 이야기³⁸⁾, 張志淵의 『逸士遺事』에 수록된 <정수동>³⁹⁾ 등을 들 수 있다. 이 작품들에는 고난에 놓인 어린 주인공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자주 나온다는 특징이 있다. 여기에서는 『어우야담』에 수록된 <명창 석개>를 통해 실제 양상을 살펴본다.

石介는 礪城君 宋寅의 여종이다. 얼굴은 늙은 원숭이처럼 생겼고 눈은 좁대 추나무로 만든 화살촉같이 찢어졌다. 아이였을 때 지방에서 올라와 侍從의役に 충당되었다. 하지만 송인의 집안이 임금의 외척으로서 세력 있는 부호였는지라 곱게 화장하고 화려하게 꾸민 미인들이 좌우에 갖추어 응대하여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이에 석개에게는 나무통을 머리에 이고 물 길어 오는 일을 시켰다.

석개가 우물에 가서 나무통을 우물 난간에 걸어 놓고는 온종일 노래만 불렀으나 그 노래가 곡조를 이루지 못해 나무꾼이나 나물 캐는 아녀자들이 부르는 노래 같았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면 빈 통을 가지고 돌아왔다. 매를 맞아도 그 버릇을 고치지 않고 다음 날 또 그와 같이 하였다. 또 나물을 캐오라고 광주리를 들러 교외로 내보냈더니 광주리를 들판에 놓아두고 작은 돌맹이를 많이 주워 모아 놓고 노래 한 곡을 부르면 돌맹이 하나를 광주리에 집어넣었다. 광주리가 가득 채워지면 이번에는 노래 한 곡이 끝날 때마다 광주리에 있는 돌을 하나씩 들에 내던졌다. 가득 채웠다가 다시 밖으로 내던지는 것을 두세 차례 반복하다 날이 저물면 빈 광주리를 가지고 돌아왔다. 매를 맞아도 그 버릇을 고치지 않고

37) 임형택 편, <광동(狂童)>, 『한문서사의 영토』 1, 태학사, 2012, 366~374쪽. 심희수의 어릴 적 이야기에 해당된다. 10여세부터 여자를 따라다니는 광동 심희수를 기생인 일타홍이 그 가능성을 알아보고 인도하여 대과에 급제하게 한 내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사를 따라 광동 심희수가 각성하고 성장한다.

38) 임형택 편, <김대갑>, 『이조한문단편집』 1, 218~222쪽. 『해동야서』, 『청구야담』, 『기문총화』, 『계서야담』, 『동야회집』 등에 실려 있다고 한다. 김대갑은 구걸하는 아동이었으나 민백상의 노비로 들어가 주인에게 은혜를 갚고 의리를 지키는 인물이다.

39) 임형택 편, <정수동>, 『이조한문단편집』 2, 192~200쪽. 편모슬하에서 자라는 유년의 정수동(정지윤)을 추사 김정희가 일러 주어 성장하는 과정이 나온다.

다음날 또 그와 같이 하였다.

여성군 송인이 석개의 이야기를 듣고 기이하게 여겨 노래를 배우게 했다. 그녀의 노래는 장안에서 첫째가는 절창이 되었는데 이는 근래 100여 년 동안에 없었던 일이다.⁴⁰⁾

16세기의 명창 석개의 삶에 관한 기록이다. 한 시대의 명인이었던 만큼 석개와 송인을 등장시킨 한시 작품들도 적지 않으나 여기에서는 위의 작품을 들어 위기를 돌파해나가는 유년의 형상에 주의하고자 한다. 작품을 보건대, 석개는 출신도 미천하고 용모도 보잘 것 없을 뿐만 아니라 총명한 자질조차도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출발하고 있다. 요절 자녀를 형상화한 앞 장의 작품들이 기대 가득한 자식의 장치를 부각했던 반면 여기 보이는 석개는 그야말로 기대할 만한 짝수가 거의 없는 가련한 아이이다.

하지만 열악한 상황에 처한 주인공 석개는 고집스러움이라는 자질 하나로 버텨나가며 결국은 인생의 역전에 성공한다. 송인의 기회 부여라는 조력자의 역할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작품이 강조하는 지점은 석개 자신의 치열한 의지와 노력이다. 매일매일 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좋아하는 것을 향해 전진하는 여자 아이의 고집 센 모습에서 주어진 운명에 항거하여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나가는 인간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것이다.

석개와 마찬가지로 동몽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아 단형의 완결된 서사를 이룬 작품들도 눈에 띈다. 蔡濟恭이 어려운 유년기에 남다른 기상을 보였다는 詩話를 비롯하여 신동 시인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대체로 이 계통의 화소를 떠올리게 하지만, 서민 계층의 인물이 세계의 위력에 대항하며 자신의 길을 헤쳐 나가는 작품들을 추가해서 살필 수도 있다. 趙秀三

40) 유몽인 지음, 신익철 등 옮김, 『어우야담』, 앞의 책 499~500쪽의 <명창석개>를 다듬어 인용함. 『어우야담』의 배경이 된 시기는 16세기 이전이라 할 수 있으나, 이 책의 유통과 향유를 고려하면 조선후기 한문학에서 논의해도 무방하다 판단하였다.

의 『秋齋紀異』에 나오는 <장님 점쟁이 유운태>나 <통영동이(統營童)>가 이에 해당하는바, 아래는 동생을 찾아 전국을 찾아다니는 아이 <統營童>의 기사이다.

통영동이는 성도 이름도 모르는데 스스로를 통영동이라고 불렀다. 그는 다리 하나를 절었다. 또한 열 살 때 동생을 잃고서 밤낮으로 울어 두 눈도 모두 어두워졌다. 부모가 다 돌아가신 뒤로는 걸인이 되어 팔도를 두루 돌아다녔다. 혹시라도 동생을 만날 수 있을까 희망을 품었기 때문이다. 그는 <백조요(百鳥謠)>를 직접 지어 불렀다. ‘피꼬리란 놈은 노래를 잘 하니 / 첩을 삼기 제격이요 // 제비란 놈은 말 잘하니 / 종년 삼기 제격이요 // 참새란 놈은 때때옷 입어 / 禁軍이 제격이요 / 황새란 놈은 목이 길어 / 포교가 제격이라.’ 이런 투의 노래였다. [하략]⁴¹⁾

단형의 이 서사에서 현저하게 부각된 것은 통영동이의 캐릭터이다. 통영 출신으로 보이는 이 아이는 마치 비극의 구덩이에 던져진 인물처럼 보인다. 절름발이에다 열 살 때는 동생을 잃고 울다 눈이 멀었고 부모가 돌아가시고는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비운의 곡절이 이 인물을 휩싸고 있다. 하지만 잃어버린 동생을 찾겠다는 그 일념 하나가 이 인물을 영롱하게 만들고 있다. 작자 조수삼은 통영동이의 百鳥謠를 후반부에 배치함으로써 전반부의 비극적 무게를 경쾌하게 반전시키고 있지만, 그래도 이동 통영동이에게서 발견되는 빛은 비극에 대처하는 인간의 자세이다. 그리고 그 빛은 성인 통영동이보다는 아이 통영동이에게서 더 찬란하게 빛난다. 참고로, 봉산 출신의 <장님 점쟁이 유운태>도 일곱 살에 맹인이 된 인물인데 그도 또한 각고의 노력으로 『주역』을 공부하여 마침내는 점술의 대가가 되었다고 한다. 역시 불굴의 이동상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캐릭터이다.

41) 조수삼 지음, 안대회 옮김, 『추재기이 秋齋紀異』, 한겨레출판, 2010, 67화 <동생 찾아 전국 팔도를, 통영동이(統營童)>, 242~243쪽.

끝으로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을 대비하면서 비범한 아동을 형상화한 서사를 보기로 한다. 이 계열의 아동 서사는 구비문학 분야에서 자주 발견되거나 한문학 자료의 유년기 인물 서사에서도 이따금 발견되는 모티브이기도 하다. 슬기롭고 현명한 아동의 서사 모티브는 자신의 자손에게서도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아동의 지혜답에 집중하고 있는 『어우야담』의 사례를 예로 들고자 한다. <어린 홍섬의 지혜>⁴²⁾ <어리석은 아이와 지혜로운 아이> 중에 후자를 소개한다.

『博物志』를 보니, 乞翁의 아들이 모기를 잡는다면서 잠든 부친의 머리통을 때려 사망시킨 일을 두고 후에 어떤 사람이 시를 짓기를 ‘똑똑한 사람의 원수가 될지언정 바보의 부모는 되지 마라(寧爲智者讐 無爲愚者親)’고 했다 한다. 근래 어떤 촌부가 여름날 문지방에 발을 걸친 채 잠이 들었는데 뱀 한 마리가 잠방이 파리를 들고 나오지 않았다. 아버가 곁에 자는 아이를 깨워 걱정하자 그 아들이 부친더러 움직이지 말라 하고는 우물가로 뛰어갔다. 그러더니 개구리 한 마리를 잡아와서 소리를 내게 하자 뱀이 스르륵 옷 바깥으로 나와 해를 면할 수 있었다. 아아, 둘 다 똑같은 아들이고 아버지한테 몽둥이를 든 어리석음과 개구리를 잡은 지혜로움이 하늘과 땅만큼 크구나! 아버가 어떤 자식을 두는가는 이 또한 운수와 상관된 일일 것이다⁴³⁾.

우매한 자식과 지혜로운 자식의 삽화를 대비시켜 완결한 서사이다. 자연히 작중에는 바보 아동과 현명한 아동이라는 두 갈래의 아동 형상이 부조되어 있다. 독자든 논평자든 이 둘 중에 얻고 싶은 아동은 누구랄 것 없이 현명한 자식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현명함은 비극을 뚫고 운명에 맞섰던 앞의 아동들과 더불어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대견한 아동

42) 유몽인 지음, 신익철 등 옮김, <어린 홍섬의 지혜>, 『어우야담』 752~753쪽. 재상 홍인필의 어린 아들 홍섬이 배 위로 지나가는 뱀을 태연하게 넘긴 이야기이다.

43) 유몽인 지음, 신익철 등 옮김, 『어우야담』, 810~811쪽을 간추려 인용함.

의 한 갈래 상을 인상 깊게 조형해내고 있다.

3) 맹랑하고 철없는 유년의 아이들

철없던 자신의 유년기에 대한 회상, 천둥벌거숭이처럼 구속받지 않고 뛰노는 아이, 주변의 말괄량이 꼬마들, 버릇없고 제멋대로이지만 미워할 수 없는 자식새끼 등이 이 계열에 포함되는 동몽의 형상들이다. 관련되는 한문학의 장르는 한시, 묘지명, 우화 등이며, 한편으로는 회화 속에 그려진 동몽⁴⁴⁾의 모습과도 비교해 볼 만하다. 가령 유득공의 <연 날리는 아이(飛鳶童子)>에 조성된 정경은 김홍도의 <서당 풍경>과 비슷한 데가 있다. 風俗畫와 紀俗詩의 경우, 동몽을 매개로 한 교차 지대가 존재하기도 하는바, 이 속의 아이들은 주로 천진난만하며 개구지기까지 한 모습을 주로 보여준다. 柳得恭의 <飛鳶童子>를 본다.

연날리기 마치자마자 숨을 쉰 내쉬면서
 처마 끝의 고드름을 와삭와삭 베어 먹네.
 돌아와 책상 앞에서 때도 없이 킁킁킁
 책 읽는 그 목소리가 파리소리 같구나.
 趁鳶纔罷氣騰騰 吃却簷端一股氷
 歸對書床無盡嗽 讀聲出口只如蠅⁴⁵⁾

연 날릴 때의 아이와 글 읽을 때의 아이를 대조시킨 작품이다. 작가의 시선은 장난스럽다. 연을 날리며 숨을 쉰 내쉬고 거침없이 고드름을 베어

44) 김홍도의 <씨름>, <무동>, <서당>에 나오는 동몽, 宴會圖 속의 侍童, 赴任圖 안의 學童, 盛市圖 안의 다양한 아동[실패놀이, 연날리기, 악대 구경, 떡 감기 등의 아이], <빈풍칠월도>류의 그림에서 노동하는 아이, <初度孤宴>에서 돌 행사하는 아이, 기행산수도 속의 侍童, 성적 호기심을 보이는 풍속도의 成童 등.

45) 柳得恭, 『冷齋集』, 권1, 한국문집총간 260.

먹을 때의 아이는 마치 장수가 될 성 싶은 활기찬 모습이다. 하지만 이 대견한 꼬마가 책상 앞에 돌아와 앉는 순간, 그는 연방 툭툭기죽어 파 리소리를 내는 지진아로 바뀌어 있다. 시인의 시선은 <서당 풍경>에서 돌아 앉아 우는 그 아이를 그린 김홍도의 시선을 연상시킨다. 그래도 이 속에 포착된 아이는 추한 아동의 형상이라기보다는 미워할 수 없는 철부지 개구쟁이에 가깝다.

철없는 아이의 밋지 않은 형상은 주변의 아이를 바라보면서도 생성될 수 있지만, 자신의 자손들을 볼 때도 가능하고 자신의 유년을 회상하며 나타나기도 한다. 천진한 자식을 즐겁게 바라보며 묘사한 시로는 정약용의 <稚子>⁴⁶⁾와尹愔의 <戲吟稚子>⁴⁷⁾ 등의 시를 들 수 있고, 자신의 어린 시절을 반추한 예로는 이덕무의 아래 회고 대목을 들 수 있다.

예닐곱하고 여덟아홉 시절, 그믐날이나 설날이면 어찌 그리 좋았던가. 때때 옷 입고 비단 띠 두르고 예쁜 가죽신을 신고서, 밤에는 옷놀이도 하고 낮에는 종이 연을 날렸지. 세배를 가면 친지 어른들께서 내 이미지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러면 우쭐한 기분이 들어 바람처럼 달렸고 머리카락은 훑날리는 듯했네. 천하에 좋은 시절이란 이날보다 좋은 때가 없으리.⁴⁸⁾

이덕무의 서술에는 마냥 행복했던 유년 시절의 기억이 점묘되어 있다. 단적으로 이 속에는 「童規」에서 개탄했던 동몽기의 추태가 섞여 있지 않

46) 丁若鏞, <穉子>, 『定本 與猶堂全書』, 詩集 권2. “穉子美顏色, 陰晴了不憂. 草暄奔似犢, 果熟挂如猴. 岸屋流蓬矢, 溪坳汎芥舟. 紛紛維世者, 堪與爾同游.”

47) 尹愔, <戲吟稚子>, 『無名子集』, 詩稿 책1, 한국문집총간 256. “惡臥踏衾裂, 恒飢索飯啼. 時看晴江浴, 一何杜稚齊.”

48) 李德懋, 『靑莊館全書』 권48, 한국문집총간 258. “六七八九歲時, 除夕元日, 何其好也. 戴雲長巾, 頭結唐髻, 衣草綠小袍子, 帶則赤錦, 鞋則紅皮, 夜排柶子, 晝瞻紙鳶. 歲拜長老, 則撫頂嬌愛, 是時也, 俊氣橫生, 行如颯風, 毛髮皆躍, 天下之好時節, 無過於此日也.”

다. 윤기의 <戲吟稚子>에서 묘사된 바, 고약한 잠버릇으로 이불이나 찢고 늘 배고프다 보채다가도 비 개면 강가에 나가 떡을 감는 철부지 아이들과도 약간 결이 다르다. 오히려 정약용이 <穉子>에서 송아지와 원숭이마냥 그저 즐겁게 뛰놀며 삶의 고난을 전혀 모른다고 한 아들의 묘사 쪽에 가깝다. 그렇더라도 이들 작품에서의 동몽은 질책되는 대상이 아니라 너그럽이 관용되는 어린 시절의 모습이다.

어린 시절의 철부지 행동이 작가의 회상을 통해 솟아올라오기도 한다. 박지원의 <伯姊贈貞夫人朴氏墓誌銘>을 보면, 누님 시집가는 날 새벽에 누님 거울에 침 바르고 화장품에 떡 섞어가며 온갖 생떼를 쓰던 저자의 유년 소행을 만날 수 있고,⁴⁹⁾ 김윤식의 <憶亡四姊>를 읽으면 착한 누나의 머리카락 잡아당기고 말 타듯 등에 타며 행패 부렸던 유년 풍경⁵⁰⁾ 들을 뽑아볼 수 있다. 이 역시 가벼운 웃음과 함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년의 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유년의 동몽이 이따금 寓言의 주요 소재로 인용된다는 것이다. 정약용의 <觀鷄雛說>⁵¹⁾에 나오는 병아리들은 서로 우애하는 자식을 우의한 것이며, <題下尙璧母鷄領子圖>⁵²⁾ 속의 병아리들은 어미

49) 朴趾源, <伯姊贈貞夫人朴氏墓誌銘>, 『燕巖集』 권2, 한국문집총간 252. “嗟乎! 姊氏新嫁曉粧, 如昨日. 余時方八歲, 嬌臥馬前(馬+展), 效婿語, 口吃鄭重, 姊氏羞, 墮梳觸額. 余怒啼, 以墨和粉, 以唾漫鏡. 姊氏出玉鴨金蜂, 賂我止啼. 至今二十八年矣.”

50) 金允植, <憶亡四姊>, 『雲養集』 권6, 한국문집총간 328. “四姊姊爲季, 於我長六歲. 清弱身多病, 服勞性婉嫵. 我幼無所知, 凌踏謾怙勢. 捽髮騎其背, 毆打兼齧蹠. 匍匐笑而受, 曲直不敢計. 一朝隨孃去, 泉臺久已閉. (후략)”

51) 丁若鏞, <觀雞雛說>, 『與猶堂全書』시문집 권10, 한국문집총간 281. 어미 닭의 인자한 보살핌 속에 자라나는 병아리들을 관찰하고 남긴 기록이다. 알에서 깨어나 성장하는 모습과 병아리 형제가 우애하는 모습을 기술한 뒤에, 자신의 자식들이 병아리들을 보고 우애를 배우라는 당부를 주체화하고 있다.

52) 丁若鏞, 『茶山詩文集』 권6, 민족문화추진회, 1994. <母鷄領子圖>는 병아리를 키우는 어진 어미닭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정약용의 시는 40구의 5언고시로서, 이 중에는 서로 먹이를 다투고, 어미의 등을 타고, 또는 제멋대로 이탈하는 병아리들에 대한

의 은혜를 아직 알지 못하는 자식들을 빗대어 묘사하고 있다. 병아리를 통해 아이의 다양한 속성을 표현한 결과인데,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제멋대로 성장하는 모습이 강조되어 있다. 19세기의 중인 張混 역시 아들에 대한 기록을 더러 남긴 문인인데, <兒狗(喻子)>⁵³⁾라는 우언 작품에서 자식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응답을 제시하고 있다. 작품을 보건대, 여러 귀한 짐승을 기르는 주인에게 어떤 손님이 ‘당신의 강아지는 별다른 능력도 없고 귀한 가축에 끼이지도 못하는데⁵⁴⁾ 대접은 다른 동물들처럼 똑같이 받으려 하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묻는다. 그러자 이 때 다른 손님이 끼어들면서 이 강아지에게 특별한 장점을 설파한다. ‘주인 곁을 떠나지 않고 항상 주인을 지키는 자질’이 남다르다는 것이다.

작중에서 작자 장혼이 심정적으로 동의한 주장은 물론 후자이다. 주인이 문을 나서면 먼저 달려 나가 한 걸음에 한 번씩 돌아보고,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면 옷자락 끝에서 빙빙 돌며 사모하듯 반기는 존재로 강아지가 묘사되고 있어서이다. 그리고 자식을 비유한[喻子] 작중의 강아지[兒狗]는 장혼의 실제 아들을 지칭한 듯 보인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해도 이 강아지가 부모의 양육을 받아가며 부모에게 늘 사랑을 바치는 소중한 아이를 형상화한 데서는 벗어지지 않는다.

4) 방치되며 버려지는 아이들

기근과 역병 등이 빈발하던 세계에서 힘없는 아동들은 기아와 유기, 학대와 살해 등에 자주 노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고아나 遺棄兒의 해결이

묘사가 포함되어 있다.

53) 張混, 『而已廣集』 권4, 한국문집총간 270.

54) 공작과 난새처럼 귀하지도 않고 역사 속의 名犬 축에도 끼지도 못하며, 돼지와 양처럼 좋은 고기를 제공하지도 못하고 소나 닭처럼 그 재주를 바치지 못하는 존재로 기술되어 있다.

사회적 난제로 떠오르기도 하였다. 국가 차원의 遺棄兒 收養令, 『慈恤典則』 등을 통한 법제적 조치, 『牧民心書』에서 보이는 버려진 아이들⁵⁵⁾의 구제책 등은 아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보여주는 예시들이다. 사적인 범주에서도 아동의 질병은 심대한 문제였으므로 장흔의 <記憾>이나 유만주의 『欽英』처럼 자식의 투병 과정을 꼼꼼하게 남긴 기록들이 눈에 띈다.⁵⁶⁾ 하지만 한문학의 영역으로 자리를 옮겨 사회적 약자로서의 아동을 검토하면 이들을 주인공화한 작품의 비중은 그리 높지 않게 나타난다. 혈연 반경 내의 자손을 형상화한 그 수많은 작품군에 비하면 사회 공동의 관심사가 되었어야 할 사회적 존재로서의 아동이 작중 주역으로 초대된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앞 장에서 살폈던 바 위기를 극복했던 비범한 아이들의 서사가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비극적인 세계에서 비극적인 리얼리티를 수반한 아동 주연의 작품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비참한 현실에 책임감을 느꼈던 일군의 작가들에게서는 사회시범주에서 논의될 만한 아동 관련 작품이 일부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孤兒나 乞兒를 중심에 두고 사회의 현실을 비판 또는 고발한 작품들이다. 고아를 작품화한 예부터 보자면 최성대, 정약용, 윤기의 장편 고시가 특히 눈에 띈다. 계모의 꺾박을 받다가 죽은 뒤에 마당의 풀이 된 아이의 사연을 노래한 최성대의 <晚孃篇>,⁵⁷⁾ 형수의 구박을 받은 고아의 비극적인

55) 『牧民心書』, 「愛民」편에는 버려진 아이가 네 갈래로 구분되어 있다. 전쟁이나 기근으로 자식을 파는 賣兒의 경우, 자식을 버리는 棄兒의 경우, 부모가 사망하여 돌볼 친척조차 없는 孤兒의 경우, 그리고 불길한 날에 낳은 자식을 꺼리는 미신 때문에 아이를 버리는 忌兒의 경우가 이것이다.

56) 장흔의 <記憾>이나 유만주의 『欽英』에서처럼, 자식의 투병과 비극적 사망에 대한 실기를 남긴 경우가 눈에 띈다. 하지만 그 때도 이 아이는 소중했던 나의 자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57) 崔成大, <晚孃篇>, 『杜機詩集』 권1, 한국문집총간 속집 70.

생을 읊은 정약용의 <孤兒行>⁵⁸⁾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형상화한 4편의 연작 중에 계모에게 구박받은 아이의 가여운 삶을 상세하게 묘사한 윤기의 <雜謠>⁵⁹⁾ 등은 장편의 특성을 살려 고단했던 아동의 슬픈 인생을 생생히 담아두려 하고 있다. 수십 구의 분량에 이르는 이 작품들에는, 계모나 형수의 매질과 구박, 가혹한 노동, 기아 수준에 놓이는衣食 상태, 춥고 배고프다는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고아의 모습이 애잔하게 점철되어 있다.

한편, 孤兒에 비하면 乞兒의 작품화 수치는 더 올라간다. 한문학 자료에서 孤兒란 애초에 ‘부모가 없는 상태임’을 뜻했던 까닭에 성인도 자신을 고아라 지칭한 경우가 많다. 우리가 자연스레 떠올리는 현대의 아동 고아와는 함의가 매우 다른 것이다. 이에 비하면 乞兒 혹은 行乞兒는 부랑하는 동몽기의 걸인을 의미하는 쪽이 더 많다. 이 계통의 작품으로는 16세기 尹鉉의 <見乞兒>⁶⁰⁾에서부터 乞兒를 제목으로 삼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으며, 조선후기에는 權正忱의 <乞兒>⁶¹⁾, 金謹行的 <與乞兒>⁶²⁾, 金祖淳의 <聞乞兒聲>⁶³⁾ 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살필 수 있다.

이중 權正忱의 <乞兒>는 36구, 金祖淳의 <聞乞兒聲>은 30구에 달하는 장편의 5언고시로서 걸아의 형상을 현장감 짙게 묘사하고 있다. 권정침의 시에는 병들고 굶주린 거지가 구걸을 다니다가 어느 집에서 쫓겨나는 장면, 시인의 집에 이르러 밥을 같이 나누어 먹는 모습, 밥을 다 얻어먹고 다시 기어가다시피 옆 마을로 향하는 모습, 모진 흉년을 만나 백성들이 도적이 되고 심지어는 서로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게 된 현실을 개

58) 丁若鏞, 정본 『與猶堂全書補遺 / 眞珠船』, 한국고전번역원 DB.

59) 尹楮, 『無名子集』, 詩稿 책1, 한국문집총간 256.

60) 尹鉉의 <見乞兒>, 『菊圃集』 권中, 한국문집총간 35.

61) 權正忱, <乞兒>, 『平庵集』 권1, 한국문집총간 속집 79.

62) 金謹行, <與乞兒>, 『庸齋集』 권1, 한국문집총간 속집 81.

63) 金祖淳, <聞乞兒聲>, 『楓臯集』 권3, 한국문집총간 289.

탄조로 묘사해내고 있다. 구난할 힘이 없이 ‘애오라지 이乞兒 시를 읊으며, 바람결에 눈물만 줄줄 흘리는(聊吟乞兒詩 臨風淚漣漣)’ 시인의 모습은 이 시의 진정을 어느 정도 감지하게 해준다.

이에 비해 김조순의 <聞乞兒聲>은 부모를 잃고 갑자기 고아가 된 거지 아이의 비참한 상황을 보다 생동감 있게 묘사해내고 있다. 그 일부를 본다.

아비를 불러도 아버지는 듣지 못하고, 어미를 찾아도 어미는 찾을 길 없네.
 아버도 어미도 외려 모르거늘, 남이야 그 누가 돌아보아 줄까나.
 돌아보아 준들 또 무슨 도움 되랴, 어차피 도랑에 굴러 죽을 팔자이거늘.
 입으로 들어갈 낱알 하나 없고, 몸에 걸칠 실오라기 하나 없으니.
 끼이끼이 눈에는 눈물이 고여, 그 눈물 한 시도 그칠 때 없구나.
 방울방울 눈물이 얼음방울 되어서, 반짝반짝 벗짚 자리 위로 떨어지네.
 날 저물어 눈발은 어찌 그리 무자비하고, 새벽 찬바람은 어찌 그리 살을 에는가!
 굳은 손가락은 굽혀지지도 않고, 갈라진 살갓은 스치기만 해도 찢겨질 듯.

[중략]

길 가다 우연히 너를 보게 되어, 수만 개 화살이 가슴에 꽂히는구나.
 저 하늘은 높고도 높건만, 저 해는 그늘지고 차갑구나.
 시린 네 울음이 무슨 잘못이라, 수레 타고 가는 내가 너무 부끄러워라.
 喚爺爺不聞, 覓孃孃不見. 爺孃尙不知, 他人肯回眄.
 回眄亦何益, 自分溝中轉. 有口無入粒, 有身無掛絲.
 啼啼眼有水, 水出無斷時. 珠珠結爲冰, 瑩瑩堆藁茲.
 暮雪何慘慘, 晨風何烈烈. 指直握不偻, 膚皴觸卽裂. [중략]
 我行忽遇爾, 萬箭攢中心. 蒼天高復高, 白日陰復陰.
 酸聲爾何辜, 殊愧軒車音.

작품은 전반적으로 거지 아이의 비참한 처지를 묘사하고 있다. 작중의 걸이는 돌보아주는 부모 없이 시리디 시린 울음을 토하는 중이다. 그리하

여 시인은 이 거지 아이를 눈여겨보게 되었고, 한 톨 입에 넣을 것도 없고 한 올 몸에 걸칠 것도 없이, 설한에 굶어 죽어 도랑에 곧 고꾸라질 것 같은 불행한 모습을 살피게 된다. 종결부에서는 수만 개의 화살이 가슴에 꽂히는 듯한 통증을 느낀다고 하여 관료지식인으로서의 양심적 가책을 숨기지 않았다.

고아나 걸아의 시린 삶을 상세하게 묘사할 수 있는 장편고시에 비하면 단형의 절구나 율시는 불행의 양상을 축약하여 묘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느 걸아에게 써 준 김근행의 <與乞兒>를 보면 절구의 색다른 표현력을 만날 수 있다.

쪽박 하나에 지팡이 짚고 어디를 가는가
 천호만호 많은 집에 이는 사람 거의 없네.
 하루의 해는 저물고 갈 길은 아득한데
 광통교 다리에서 주저하며 서 있네.
 單瓢一杖向何歸, 萬戶千門相識稀.
 白日已斜前路遠, 廣通橋外立遲遲.

광통교에서 마주친 거지에게 준 것으로 짐작되는 작품이다. 작중의 거지가 동몽의 아이인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그는 바가지 하나 손에 들고 천호만호 서울 거리에서 구걸하는 신세이다. 3, 4구는 김근행 자신의 심정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거지는 이미 저물어가는 서울의 어느 거리로 떠났고 자신은 광통교 위에 망연자실 어디론가 떠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은 특별하게 걸아의 참상을 부연하지 않았지만 어느 불행한 자의 막막함을 가슴으로 동감하게 만들고 있다. 걸아의 이미지 속에 고아의 잔상을 포개어본다 해도 잘못된 해석은 아닐 것이다.

5. 맺음말

이상에서 본고는 교육 대상으로서의 동몽, 잠재적 작가로서의 동몽, 그리고 작중 인물로서의 동몽으로 분류하여 한국 한문학과 연관된 동몽의 양상을 조감하여 보았다. 서론에서 밝혔던 바와 같이 본고의 동몽은 오늘날의 아동 개념을 대신하여 선택된 어휘이다. 이제 조선후기 한문학에서 강조하고 싶은 특징적 경향을 간추리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후기 한문학에서는 동몽을 수용하는 문학 장르가 확대되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품의 빈도도 현저하게 높아졌음을 알게 되었다. 동몽의 삶을 기록한 壙誌, 壙銘, 墓誌銘, 瘞誌 등은 이전에 비해 확실하게 주목되는 한문학사의 변화이다. 祭文과 哀悼詩, 일기나 필기, 나아가 동요 등을 통해 아동이 문학의 장 안에 포괄적으로 진입하게 된 것도 긍정적이고 중요한 변화였다고 판단된다. 동요의 향유층으로 동몽이 부상하고 습작 차원에서 일망정 왕성하게 저술을 남기는 동몽이 나타나게 된 것 또한 조선후기 한문학이 보유한 소중한 자산이라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문학에서의 동몽 관련 작품은 고전문학의 여타 범주에 비해 작자와 직접적인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삼는 비중이 높았다. 작품화된 아동은 대체로 실존인물이자 고유명사로 호명될 수 있는 존재들이었으며 그러기에 작중 아동이 작가와 주관적으로 밀착되는 경향이 강했다. 주인공을 객관화한 일부의 서사 작품, 다중을 대상으로 삼는 동몽서 그리고 세태 개탄 문맥에서 호출된 동몽 등을 제외하면, 한문학에서의 아동은 거의가 귀한 나의 자식이었던 그 누군가를 작중 중심인물로 대우하였다.

셋째, 자식으로서의 이미지를 겸한 아동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까닭에 이 계통에 부조된 아동은 대부분 그리움과 사랑의 존재들로 형상화되었다. 기린과 봉황에 비유하고 싶었던 金玉처럼 귀한 아동에게 구태여 밭상과 추태를 부각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더불어, 맹랑하고 철없는 유년

의 형상도 혈연적 반경에서 비롯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자신의 유년 회상에서 발화되는 아이들은 물론이요 작자 주변의 자손과 아이들 또한 이웃과 자손의 시아에 분포하는 존재들이었다.

넷째, 위기를 극복한 비범한 아이들을 포함하여 사회적 약자에 속한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삼은 작품들은 상대적으로 드문 양상을 보였다. 자신의 의지로 비극적 운명을 개척한 동몽들이 단형서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예가 눈에 띠었으나 시 잘 쓰는 신동 주인공에 비하면 작품화된 비중이 낮은 편이었다. 이는 시 중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실존 인물의 시화가 한문학 향유층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결과라고 해석될 수 있다. 반면에 비극에 맞서 이를 돌파한 인물들은 실제의 현실에서 나타나기 힘든 인물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물에 대한 문학적 응시도 유몽인, 박지원, 조수삼 등 소수 작가에 한정된 경향이 짙었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작품화가 빈곤한 상황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한문학의 범주에서 보면 나의 자식을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드물었다. 실제의 현실에서 아동은 귀하지 않은 존재로서 굶주림, 유기, 착취 등에 흔하게 노출되었지만, 정작 한문학의 영토로 들어오면 수많은 동몽이 그림고 총명한 주인공으로 바뀌어 있었다. 세계의 비정함을 응시한 일부의 시인들에 의해 乞兒, 孤兒 등의 형상이 몽클하게 부조되었다 할지라도 한문학이 현실의 음지를 제대로 응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조선후기 한문학은 동몽의 인간에게 자식의 반경을 넘어서는 사회적 위상과 지위를 정당하게 부여하지 못했던 것이다.

본고에서 수행한 검토 결과는 근대문학에서 태동하는 아동문학과 상호 대비될 때 문학사적 조망이 더 분명해질 것이다. 하지만 본고에는 여러 여건상 이 과제를 정면으로 수용하지 못했다. 한문학의 유산이 근대 이후에 그대로 이어지지 못한 현실도 고려해야 마땅하겠지만, 향후 한국 아동문학사의 논의에 본고가 작은 기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할 뿐이다.

참고문헌

1. 자료

- 고사경 등 엮음, 박철주 역, 『역주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민속원, 2014.
- 權正忱, 『平庵集』, 한국문집총간 속집 79.
- 金謹行, 『庸齋集』, 한국문집총간 속집 81.
- 金相肅, 『續日知錄』, 규장각소장본.
- 金允植, 『雲養集』, 한국문집총간 328.
- 金祖淳, 『楓臯集』, 한국문집총간 289.
- 金昌協, 『農巖集』, 한국문집총간 162.
- 朴趾源, 『燕巖集』, 한국문집총간 252.
- 성백효 역주, 현토완역 『명심보감』, 전통문화연구회, 2009.
- 성백효 역주, 『현토완역 童蒙先習·擊蒙要訣』, 전통문화연구회, 2010.
- 소혜양후 지음, 이경하 주해, 『내훈』, 한길사, 2011.
- 沈翊雲, 『百一詩集』, 규장각소장본.
- 安鼎福, 『順菴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229.
- 柳得恭, 『冷齋集』, 권1, 한국문집총간 260.
- 유몽인 지음, 신익철 등 옮김, 『어우야담』, 돌베개, 2011.
- 尹 楮, 『無名子集』, 詩稿 책1, 한국문집총간 256.
- 尹 鉉, 『菊圃集』 권中, 한국문집총간 35.
- 李德懋, 『靑莊館全書』, 한국문집총간 258.
- 이덕무 저, 김종권 역, 『사소절』, 명문당, 1985.
- 李匡師, 『斗南集』, 서울대학교 규장각소장본.
- 李匡師, 『圓嶠集選』, 한국문집총간 221.
- 李夏坤, 『頭陀草』, 한국문집총간 191.
- 임민혁 번역, 주희 지음, 『주자가례』, 예문서원, 2007.
- 임형택 편, 『한문서사의 영토』, 태학사, 2012.
- 張 混, 『而已廣集』, 한국문집총간 270.
- 丁範祖, 『海左集』, 한국문집총간 239.
- 丁若鏞, 정본 『與猶堂全書』, 한국고전번역원 DB.
- 丁若鏞, 『茶山詩文集』, 민족문화추진회, 1994.

조수삼 지음, 안대회 옮김, 『추재기이(秋齋紀異)』, 한겨레출판, 2010.

趙秀三, 『秋齋集』, 한국문집총간 217.

홍만중 지음, 안대회 옮김, 『소화시평』, 성균관대출판부, 2016.

2. 단행본

김상홍, 김상홍, 『아버지 다산』, 글항아리, 14~113쪽.

안대회, 『선비답게 산다는 것』, 푸른역사, 2007, 195~202쪽.

안대회, 『내 생애 첫 번째 시 : 아동 한시 선집』, 보림, 2016, 5~348쪽.

박동욱, 『가족 : 세상에 다시없는 내 편』, 태학사, 2014, 23~122쪽.

박동욱,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휴머니스트, 2017, 11~283쪽.

유안진, 『韓國의 傳統育兒方式』, 서울대출판부, 1986, 48~57쪽.

정량원, 『江華學派의 文學과 思想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339~372쪽.

허경진, 『내 아들 딸들에게 아버지가 쓴다』, 푸른역사, 1999, 6~291쪽.

허경진, 『옛 선비들이 어릴 적 지은 한시이야기』, 알마출판사, 2014, 4~215쪽.

3. 논문

김동준, 「성장기 愼後聃의 지적 욕망과 『河濱雜著』」, 『민족문화연구』 6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4, 153~179쪽.

김미라, 「韓國 傳統 어린이 教育觀 研究」, 성균관대 박사논문, 2012, 3~263쪽.

김미화, 「漢文學 作家의 兒童期 漢詩 研究」,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2006, 4~116쪽.

민경상, 「이덕무 『사소절(士小節)』의 덕 윤리적 해석」, 경인교대 석사논문, 2009, 3~123쪽.

박동욱, 「천연두, 그 아픔과 상실의 기억」, 『우리어문연구』 52, 2015, 261~288쪽.

박동욱, 「한시에 나타난 養子의 모습」, 『民族文化』 49, 2017, 333~356쪽.

박서진, 「조선후기 遺棄兒 收養法의 변화와 수양의 양상」, 부산대 석사논문, 2018, 1~39쪽.

백혜리, 「조선시대 성리학, 실학, 동학의 아동관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1997, 1~133쪽.

손애화, 「동몽시의 언술 특징과 의미」, 『한국언어문학』 88, 2014, 101~126쪽.

심경호, 「전근대 시기의 아동관과 아동의 문학」, 『창비 어린이』 5-4, 2007, 198~222쪽.

- 안기중, 「朝鮮朝 童蒙詩 研究」, 안동대학교 석사논문, 2005, 3~102쪽.
- 안대회, 「조선조 아동 한시의 텍스트와 아동 한시를 보는 시각」, 『진단학보』 122, 2014, 119~143쪽.
- 우영희, 「朝鮮時代 敎訓書를 통해 본 子女養育」, 중앙대 박사논문, 1989, 1~98쪽.
- 이정숙, 「李德懋의 청소년예절교육론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2011, 5~121쪽.
- 이종목, 「조선시대 여성과 아동의 한시 향유와 이중언어 체계」, 『진단학보』 104, 2007, 179~208쪽.
- 정경주, 「조선조 아동 한시에 대하여」, 『부산한문학』 3, 부산대학교, 1988, 249~277쪽.
- 정운채, 「한시의 예언적인 힘의 원천과 기의 성격」, 『고전문학연구』 11, 1996, 203~239쪽.
- 진재교, 「無名子 尹櫓의 童蒙詩와 그 世界」, 『大東文化研究』 89, 2015, 85~111쪽.

ABSTRACT

An Aspect Related to Children and Sino-Korean Literature
in the Late Joseon Dynasty
—Focusing on the Looks of Children Represented within Works

Kim, Dong-jun

This thesis is the result of reviewing the relational aspect between Sino-Korean literature and children by researching the materials of Sino-Korean literature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rough this research, this thesis aimed to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looks shown in Sino-Korean literature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the value of researches on children in the history of Sino-Korean literature.

The Chapter 2 examined the looks of children as an object of education. After going through the stage of distributing enlightening books for child education in the mid Joseon Dynasty, the exemplary image of children was strongly pursued through family motto and will of each family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parents' expectation of a child who would become a successor of family tended to force the ideal image of human to children even in childhood.

The Chapter 3 examined children as a potential writer. The children who were great at writing sentences, especially poetry, were widely praised as a prodigy. Also,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children appeared as a writer group of children's songs. Meanwhile, just like the case of Shin, Hoo-Dam, there were also cases of attempting to write enthusiastically. This aspect of emphasizing the literary competency of children implies that the literacy education in childhood was regarded as very important.

The Chapter 4 examined the forms of children described within works. Especially,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works about children were sharply increased by utilizing various genres. Those works extensively

represented my[our] longing and lovely children, extraordinary children overcoming a crisis based on their wisdom, immature and pure children in childhood, and socially-neglected/abandoned children.

In conclusions, the characteristics of Sino-Korean literature related to children in the late Joseon Dynasty could be summarized. First, the sub-genres of Sino-Korean literature accepting children were expanded, and the frequency of works was remarkably increased. This shows the positive change of Sino-Korean literature in the late Joseon Dynasty, aiming to include children in the place of literature. Second, the children in the place of Sino-Korean literature were mostly based on the direct interpersonal relationship with authors. Most of the children represented in works were real people who could be called a proper noun, and they were mostly represented as beings of longing and love. Third, it was relatively rare to find a case in which the children captured in sociological gaze such as abandoned children or begging children became the main characters of works. This means that the Sino-Korean literature of those days was insufficient to righteously recognize the reality of children, so that it was insufficient to have a full-literary gaze.

Key Words Late Joseon Dynasty, Sino-Korean Literature, Children, Abandoned Children, Child Education, Enlightenment, Family Motto, Will, Children's Song, Funeral Oration, Epitaph

논문투고일 : 2020.07.22
심사완료일 : 2020.08.07
게재확정일 : 2020.08.12